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대남한 언론활동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를 중심으로*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교수)³⁶⁾

이 연구는 한국전쟁(6·25전쟁) 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시행한 언론정책과 그에 따른 주요 언론활동을 고찰했다. 또한 언론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대해 분석했다.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그날부터 방송을 운영하고 바로 신문을 창간했다. 이어 북한과 소련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보급하기 시작했고 영화를 상영했으며, 주간지를 창간하는 등 적극적으로 언론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이 여러 매체들이 출현했으나 그 목표는 모두 같았다. 성공적인 전쟁수행과 점령한 남한지역에 북한식 제도와 법을 도입하여 공산주의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김일성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두 신문은 권력의 대행자로서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선동적 거짓말을 과장해서 보도한 수단적 존재였다. 그리하여 당시 남한의 독자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시각과 행동을 주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을 비롯한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운영한 언론매체들은 수용자인 남한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의 남한주민들은 북한 언론매체의 일방적이며 진실성이 결여된 끊임없는 선전과 선동,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피곤해했다. 따라서 한국전쟁 개시 이후 북한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은 그들이 목표로 한 남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전쟁, 북한, 남한, 언론활동,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B00042).

** properk@hanmail.net

1.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6·25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의 전쟁기간은 3년이 넘는 기간이었다. 이 짧지 않은 기간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도 주목할 만한 여러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양상 가운데 하나는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북한이 주체가 되어 출현한 미디어 현상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5일째인 7월 2일 서울에서 창간한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를 들 수 있다. 북한군은 서울중앙방송국 시설도 접수해서 방송국을 운영했다. 또한 북한군이 점령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신문이 발행되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전쟁 중에 이와 같이 점령 직후 바로 신문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운영했다는 것은 북한이 점령지 남한에 대한 언론선전정책에서 신문, 방송, 출판물 등 미디어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남한을 점령한 기간 북한과 북한에 동조한 조직이 주체로 출현한 미디어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은 언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갑작스러운 전쟁발발로 남한의 신문, 방송 등이 제대로 운용할 수 없었던 기간에 북한이 운영한 미디어는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의 남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었던 주요 매체였기 때문이다. 전쟁기간 중도 특히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직후에서 9월 15일 유엔(UN)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기까지 3개월 가까운 기간 서울에서 발행한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피난을 가지 못했거나 굳이 피난을 가지 않았던 100만이 넘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접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다.¹⁾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남한의 신문들은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다시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발행되지 못했으므로 이 신문들만 접할 수 있었던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독자들에게 긍정적이든

1) 당시 서울인구는 144만 6천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만 명 정도가 피난을 떠났다. 이들의 80%가 월남자, 정부고관, 우파정치인, 군인 및 경찰이었다고 한다(중앙일보사 편, 1983, 75쪽).

부정적이든 이 두 신문의 의미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두 신문은 북한 정부와 북한 조선로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로서 그 대표성에서 더욱 연구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여 이 글은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남한에 전개한 언론활동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쟁기간 남한에 대한 북한의 언론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과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 및 빨치산조직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체가 된 언론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서 행한 언론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는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뒤에서 살펴보듯이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모든 미디어의 발행 목표는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수상이며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이 제시하고 명령하는 방향과 이에 따라 결정된 북한정부의 법, 제도, 방침 등에 대한 조직적인 선전과 선동이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발행 목표와 내용은 남한에서 전개한 나머지 북한의 언론활동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두 신문의 발행양상을 살펴보고, 사실 분석을 통해 두 신문의 기본적인 인식과 논조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의 성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서울에서 발행한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대해 그 존재가 소개되어왔으나(최준, 1971; 김영주, 1998; 정진석, 2003b),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 밖의 다른 신문이나 통신, 잡지 등의 존재는 소개된 적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 어려웠고, 특히 그 실물이 거의 보관되지 않았거나 일부 보관되었더라도 제1공화국 시기 이후 군부독재시절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상황에서 이들 미디어의 존재를 드러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발행한 미디어 상황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언론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행이 당시 발행된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대부분의 지면과 그 밖의 주요 신문 일부가 한국전쟁기간 미군이 노획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 신문들이 기밀 해제된 후 1996년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축소 또는 확대해서 『빨치산자료집 6』 신문편(1)과 『빨치산자료집 7』 신문편(2)로 편집, 발행하였다.²⁾

이 글은 이 두 자료집과 연속 간행된 『북한관계사료집』(국사편찬위원회)을 기본 자료로 활용해서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을 역사적 문헌연구방법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언론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을 고찰하기 위해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사설에 대해 내용분석 방법으로 주제, 논조, 주제의 논의구성방식 및 제목의 표현방식에 대해 고찰했다. 주제 분류는 먼저 전체 사설을 읽고 많이 다룬 내용을 분석유목으로 설정했다. 논조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³⁾ 주제의 논의 구성방식은 주제기술, 주제기술+해설, 주제기술+선전·선동, 주제기술+해설+선전·선동, 주제기술+중요·적개심 고취 등으로 분류해서 고찰했다. 사설 제목의 표현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의 객관적 서술 형식, 주관적 느낌과 주장 형식, 선전·선동 형식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2.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대남한 언론정책과 활동

1) 한국전쟁기간 북한의 대남한 언론정책

-
- 2) 신문편(1)이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를 축소 영인한 것이고, 신문편(2)는 각 지방에서 노획한 신문들이다.
- 3) 주제에 대한 찬성, 찬양, 호의적 태도를 긍정으로, 반대, 비난, 비호의적 태도 등을 부정으로, 어떤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제시된 경우를 중립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여러 매체 가운데 특히 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에 중점을 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조, 설명했다. 북한에서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강력한 무기”로 중시하기 때문이다(배순재·라두림, 1967/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46쪽). 북한에서 출판물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집단적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 혁명투쟁에서 가장 힘 있는 사상적 무기라는 것이다. 북한 언론의 선전선동자적 기능과 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일반 원칙은 계급성과 당성, 인민성과 대중성, 진실성과 전투성으로 설명된다(김영주, 1991). 한국전쟁기간 언론보도활동의 기본방침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전쟁승리로 복종시키며 신속성과 기동성을 보장하면서 출판보도사업⁴⁾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출판보도물의 과업으로 이른바 ‘교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22~23권 (1981~1982)/김영주·이범수 공편(1991), 181쪽).

신문, 잡지들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역도들의 침략정책과 략탈성을 폭로하는 자료, 우리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알려주며 인민대군의 승리적 진격과 전투모습을 알려주는 자료,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 해방 후 민주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료들을 더 많이 소개하여야 합니다.

출판물들에서는 우리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널리 선전해야 하며 모든 것을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격멸소탕하는 데 바치도록 인민들을 고무격려하여야 합니다.

전쟁기간 모든 매체는 이러한 김일성의 지시를 받드는 방향에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50년 6월 27일부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 ‘보도부’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서 각 전선의 전과를 매일 종합

4) 출판보도사업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언론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중앙통신사를 통해 신문과 방송에 넘겨주어 보도하게 하였다.⁵⁾ 북한정부는 또한 내각 지시 제581호로 남한에서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적극적으로 보급 및 배포하기 위해 사업을 정확히 조직하도록 독려하고, 1950년 9월 1일부터 신문의 구독료는 선납제로 송달, 배포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조선』과 『로동신문』은 내각에서 지시하는 지역 및 부수에 한해 무가로 송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토록 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96, 466쪽). 이와 함께 출판보도물이 인민군장병과 인민에게 제때에 보급되도록 출판물보급사업을 군수물자운반과 같이 취급하도록 운영했다(군사위원회 명령 제141호, 1951년 5월 21일). 통신이나 신문기사는 서울시 인민위원회에서 엄격한 검열을 실시했다(중앙일보사 편, 1983, 122쪽). 방송은 평양중앙방송국과 연계하여 운영했고, 잡지, 출판물 및 영화 역시 서울시 인민위원회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받았다.

2) 한국전쟁 기간 북한의 대남한 언론활동

북한은 남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전쟁을 통해 점령한 남한지역을 해방구라 부르고, 북한정책에 따라 사회조직과 제도를 변경해갔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 당일로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북한정부 사법상인 이승엽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을 장악한 직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북한 정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전개하기 위해 북한이 무엇보다 힘을 기울인 것은 문화선전사업이었다. 다양한 매체를 직접 발행하거나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그들의 이른바 출판보도일군, 방송일군들을 파견하여 신문과 주간지를 발행하고 방송과 통신을 운영했으며, 각종 정기간행물과 단행본들을 적극

5)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를 예로 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군총사령부의 보도”라는 제목의 박스기사 형식으로 매일 일정하게 두 건의 보도내용을 게재했다. 7월 22일자의 경우 7월 21일 아침보도를 먼저 배치하고, 7월 20일 저녁보도를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형식이 유지되었다.

소개, 보급하였다. 영화도 중시한 수단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⁶⁾

(1) 신문 발행

한국전쟁기간 북한과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남한의 빨치산조직은 남한 전 지역에서 신문을 발행했다. 다음 <표 1>은 당시 노획되어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되었던 것을 영인한 신문들이다.⁷⁾ 이 표와 같이 북한 정부와 로동당, 농민, 청년, 여성단체 등과 빨치산조직이 남한에서 발행한 신문 가운데 확인된 신문이 모두 45종이었다. 노획되지 않은 신문들도 일부 더 있을

- 6) 북한정부가 남한점령지역에서 전개한 문화선전사업에는 이러한 매체와 함께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면, (1) 각종 좌담회, 강습회, 궐기대회, 군중대회, 열성자대회 등 단체 활동 방식의 선전선동활동이 각 조직, 지역, 직업단위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2) 벽보, 표어, 포스터, 플래카드, 배라 등 선전물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김성철, 1993; 박명림, 2002; 정용욱, 2004; 김영희, 2007). (3) 남한 점령지역 주민과 인민군 위안을 명목으로 평양경축예술단, 인민군 예술극장과 협주단, 조선문화단체총련맹 산하 연극, 가극, 무용, 국악, 영화, 문학동맹, 평양시위문단, 농민예술극단 등의 단체에서 음악, 무용, 연극 공연과 영화 상영을 통한 정치선전교육도 중요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4) 민주선전실을 각 직장과 동에 설치하여 그 안에 신문, 도서 등을 비치하고 시민들의 공산당 교양사업을 주도했다. 민주선전실은 1950년 9월 10일 현재 서울시내 360여개가 설치되었고(『조선인민보』, 1950. 9. 10), 주민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5) “전 세계 민주사회의 성새”인 소련의 정치, 산업, 교육, 문화와 북한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사진 전람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6) 서울, 경기지역의 북한 방문 관광단이 조직되어 북한을 견학하고 관광귀환좌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전투에 참여한 인민군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전원과 선동원 등 대인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용했다(김영주, 1998).
- 7)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경우 1950년 발행신문은 일부 결호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보존되어 있다. 1951년도에 발행한 신문은 『조선인민보』는 한 호가 남아 있고, 『해방일보』는 25호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존된 것이 20호이다. 나머지 신문들 가운데 『승리의 길』이 41호, 『경남로동신문』이 36호가 남아 있어 많은 편이고, 그 이외의 신문은 매우 적은 호수만 확인된다.

<표 1> 한국전쟁기간 북한과 관련된 남한의 주요 신문

신문 이름	신문 성격	발행소	창간일
조선인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조선인민보사(서울)	1950. 7. 2
해방일보	조선로동당 기관지	해방일보사(서울)	1950. 7. 2
승리의 길	조선인민군유격대 남부군 기관지 ⁸⁾	승리의 길사	1950년 12월경
충북로동신문	조선로동당충북도당부기관지	충북로동신문사(청주)	1951
충남로동신문	조선로동당충남도당조직위원및 충남빨치산군단사령부기관지	충남로동신문사	1950년 8월경
충남인민보		충남인민보사	1950. 8. 28
충남민청	충남도민청군단민청기관지	대전시	1951년 3월경
유격전선	6.2지대및충남유격대기관지	대전시	1951. 10. 8
승리의길		승리일보사 (대구)	1951년 하반기
경북로동신문	조선로동당경북도당부기관지	경북로동신문사 (대구)	1951년 하반기
유격전선	제3유격지대기관지		1950년 하반기
불 길	조선인민유격대불길사단기관지	불길사	1951
경남빨치산	남부군제57사단기관지	경남빨치산사	1951년 봄
경남로동신문	조선로동당경남도당기관지	경남로동신문사 (부산)	1950년11월
농민신문		농민위원회	1951.4.10
앞으로		동부지구당	1950년 하반기
붉은별	경남지구인민유격대제7군단보		1951.4.15
선 봉		양산군당	1950.12.1
뉴스		경남로동신문사	1951
조국을위하여		조국일보사(부산)	1951.12.22
빨치산	전북빨치산총사령부기관지		1950년말
투 보	전북남원군빨치산사령부기관지		1951년 봄

신문 이름	신문 성격	발행소	창간일
회문산승리의길		회문산승리의길사	1951년 하반기
덕유산승리의길	조선인민유격대남부중대92사단 기관지		1951년 하반기
전북로동신문	조선로동당전북도당부기관지		1951.
전북민주여성		전북민주여성사 (전주)	1951년 하반기
전북인민보		전북인민보사	1951
전남빨치산		전남빨치산사	1950년 하반기
불갑산빨치산		불갑산빨치산사	1950년 하반기
무등산빨치산		무등산빨치산사	1951년 초
유치빨치산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장흥지구사령부	1951.
전남로동신문	조선로동당전남도당부기관지		1950년 하반기
광주로동신문		로동신문사(광주)	1950년 하반기
백운로동신문			1951
전남인민보		전남인민보(광주)	1951
속 보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지대	1951
유격전선	929빨치산병단기관지		1950
통신		조선빨치산독립제6지대 정치부	1951년1월
전투문학		조선빨치산독립제6지대 정치선전부	1951
료령로동신문	강원(남)도도당선전부기관지		1950년7월
인민을위하여		조선인민군제256부대 민간사업부	1951년 하반기
묘향산돌진	조선민주동맹원묘향산지도위원회 회기관지	거제도인민군포로수용 소내	1952. 9. 25
묘향산전진	조선로동당원묘향산지도위원회	거제도인민군포로수용	1952

신문 이름	신문 성격	발행소	창간일
	기관지	소내	
호소문		거제도인민군포로수용 소제3병원위원장	1952
돌진	민주청년동맹원 신고산지도위원회기관지	거제도인민군포로수용 소내	1952

출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6). 『빨치산자료집 6』, 신문편(1)과 『빨치산자료집 7』, 신문편(2)에 의거해서 구성함.

것이지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짧은 기간에 남한 각 지역에서 적지 않은 신문이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문발행에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51년 봄 점령과 탈환의 과정을 거쳐 전선이 38선을 중심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고, 1951년 6월 23일 공식적으로 휴전이 제안되면서 북한으로의 퇴로가 끊긴 고립된 상황이었는에도 남한의 여러 지역에 북한을 지지하는 지하조직과 빨치산이 활동했으며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

발행연도로 보면 대부분의 신문이 1950년 하반기에서 1951년에 발행되었고 1952년 중반 빨치산이 거의 토벌되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던 것 같다. 1952년에는 거제도 인민군 포로수용소에서 신문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오래 발행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러 신문이 발행되었지만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만 정상적으로 인쇄, 발행되었다.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는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직후인 7월 2일 창간되어 발행되었고, 9월 28일 서울이 유엔군과 국군에 탈환되기 직전 발행을 중단했다가 1951년 초 북한이 서울을 일시 점령한 기간에 다시 발행했다. 나머지 신문은 격일간이나 순간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발행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신문이 타블로이드 크기로 손으로 직접 기사를 쓴 등사판 2면 신문이었다. 2면으로 발행했다가

8) 남부군은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유엔군과 한국군에 탈환된 후 철수하지 못한 북한군이 산으로 올라가 형성한 빨치산 특수부대의 이름이다.

어느 날은 1면만 발행한 경우도 있고, 인쇄로 발행했다가 사정이 나빠졌는지 등사판으로 발행한 신문도 있었다. 신문성격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신문 가운데 각 지역의 인민보는 독립된 신문사로 설립되었더라도 북한이 남한 각 도에 구성한 도위원회의 기관지이거나 북한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신문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평양에서 발행하는 신문 가운데 『로동신문』과 『인민군신문』이 서울에서 인쇄, 배포되었다.⁹⁾ 김일성의 지시로 출판보도물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위해 로동신문사, 인민군신문사 일군들이 매호의 신문지형을 평양에서 서울로 운반해 신문을 인쇄, 배포했다는 것이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81~1982/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183쪽). 한편 1950년 7월 초 서울 중구에서 종업원 수가 34명인 『부녀신문』이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476쪽). 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창간한 신문으로 생각된다.

(2) 방송 운영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 서울중앙방송국을 접수하고 저녁 9시에 북한의 혁명송가라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방송하고, 이어 김일성의 서울해방 축하문을 방송했다.

서울방송은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 평양중앙방송국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중계하는 방송과 서울시민의 지방방송을 실시했는데, 서울 점령 초기 다음과 같은 방송순서로 뉴스, 기록소식과 음악을 방송했다(『조선인민보』, 1950. 7. 4, 2면). 평양방송 중계가 3시간 15분, 서울방송의 지역방송이 55분으로 모두 4시간 10분이었다.

북한이 운영한 서울방송의 주요 프로그램 (1950년 7월 4일 현재)

전국방송 (평양방송을 중계) 6시 30분 ~ 7시 30분

9) 『로동신문』의 경우 실제 서울에서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서울지사에서 발행한 통신을 『로동신문』에도 배달했다고 한다(합동통신 30년 편찬위원회편, 1975, 61쪽).

12시 ~ 13시

20시 ~ 21시 15분

지방방송(서울방송국의 로컬방송) 7시 45분 ~ 8시

11시50분 ~ 12시

12시 ~ 12시 30분

인민군총사령부의 전황보도는 아침, 저녁으로 정기 방송되는 중요 뉴스였다. 남북되거나 지수 또는 전향한 주요 인사, 미군포로, 국군 가족 등이 참회나 회유하는 내용도 자주 방송되었다.¹⁰⁾ 조선직업동맹 전국평의회(全評)의 남한 각 지역 및 직장위원회 등 새로 조직된 각 단체들이 선전선동활동에 방송을 다양하게 활용하였고,¹¹⁾ 라디오 수신기를 구입, 비치하여 주민들이 방송을 들도록 적극 독려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373, 475쪽). 또한 침략자 미국과 이승만에 대한 비판, 이를 격멸하리라는 각오, 북한이 점령한 남한지역에 실시하는 인민위원회 선거의 결과, 토지 개혁의 진척 상황, 토지를 받은 농민들의 감사, 노동법 실시에 대한 감격, 반역자 처단에 관한 서명운동 등에 대해 꾸준히 방송되었다(박찬웅, 1990; 김성철, 1993). 이처럼 방송 역시 뒤에서 살펴보는 『조선인민보』나 『해방일보』와 마찬가지로 오락프로그램이 없이 전쟁을 치르는 북한당국이 전하려는 내용을 선전, 선동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이러한 방송 내용이었지만 라디오를 소유한 세대에서는 전황을 알기 위해서 북한이 운영하는 방송을 정기적으로 들었던 것 같다(박찬웅, 1990; 김성철, 1993). 그러나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김성철은 인민공화국의 방송이 “힘차기

10)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의하면 남북된 안재홍(한성일보사장, 국회의원), 김규식(민족자주연맹주석), 조소앙(민족자주연맹주석), 김효석(이승만정부 내무장관), 송호성(국군사단장) 등이 북한을 지지하는 방송 연설을 하였다.

11) 그 한 예를 살펴보면 조선직업동맹 전국평의회 문화부는 1950년 8월 한 달 동안 “남반부 해방지구의 로동자들이여! 미제침략자를 소탕하는 전쟁에 총궐기라!”(8월 12일 통신직맹 문주중) “로동법령실시의 감격을 지니고 증산투쟁에 더욱 헌신성을 발휘하여 싸우자!”(8월 27일 철도 리종석) 등 전평의 간부와 일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송을 14회 개최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90, 460~461쪽).

는 해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날마다 되풀이하여 딱 질색”이었다고 평가했다. 언론인 김을한은 날마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 내용은 “한두 번 틀고 보면 너더리가 나”고(김을한, 1957, 64쪽) “어찌나 그리 판에 박은 듯 같은 것인지 두 번 듣고 나면 세 번째는 이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김성칠, 1993, 193쪽). 이런 실정이었으므로 신문과 마찬가지로 방송 보도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전하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독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단파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수신기를 소유한 사람들은 발각되면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이었지만 몰래 남한방송이나 유엔방송, 일본방송 등을 열심히 들었다(김을한, 1957; 김재준, 1970; 박찬웅, 1990; 김성칠, 1993).

(3) 통신사 운영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서울에 있던 한국통신은 원래 이름 조선통신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한동안 북한의 서울지역 통신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¹²⁾ 조선통신이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사의 통신내용을 중계하거나 소련의 타스(TASS)통신이 보내는 외신을 직접 수신해서 신문과 방송에 전달한 것이다. 1950년 7월 서울에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사 총지사가 설치되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중앙통신 서울 총지사는 서울에

12)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의하면 창간호부터 1950년 8월 12일자까지 조선통신 이름이 보인다. 외신의 경우 평양 조선중앙통신사가 소련의 타스통신이 보내주는 기사를 <마스통신=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의 형식으로 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50년 8월 13일자부터는 조선중앙통신=조선통신의 표기가 없어지고, 조선중앙통신으로만 표기되었다. 북한의 공식 역사에는 1950년 7월에 조선중앙통신 서울총지사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의 착오이거나 그때 설치되었더라도 실제 활동은 8월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81~1982/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182쪽). 조선통신이 파견한 중군특파원의 중군기사가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게재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내각직속의 통신사인데, 1946년 12월 평양에 북조선통신위원회 직속의 북조선통신사로 설립되었다가,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인 1948년 10월 이름이 변경되었다.

있던 합동통신, 조선통신, 공립통신 가운데 공립통신은 폐지하고 합동통신과 조선통신을 통합하여 조직된 것이다(합동통신 30년 편찬위원회, 1975, 58~59쪽).¹³⁾

조선중앙통신사 서울지사는 북한에서 파견된 박덕수를 대표로 외신담당 부국장, 총무담당 부국장, 편집담당 부국장의 3부국장과 편집국격인 기요부(機要部)를 중심으로 그 밑에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등의 취재부서와 무전부, 발행부로 조직되었다. 이른바 「정책통신」은 모든 내외신을 사실 그대로 수신하여 당과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자료로 보내졌고, 「일반통신」은 서울에 파견된 북한 선전성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 본사의 통신과 직접 현지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주요 신문과 방송에 보냈다. 통신은 100부 정도를 하루 2편 발행해 『조선인민보』, 『로동신문』, 『해방일보』 등의 세 신문과 시, 구인민위원회, 각 내무서 및 북한의 주요기관 50여개 처에 배달되었다(합동통신 30년 편찬위원회, 1975, 60~61쪽). 1950년 8월 이후 서울에 미국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통신문은 하루 1편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9월 10일 101호 발행을 끝으로 철수했다고 한다. 서울 총지사는 북한이 점령한 남한의 각도에 지사를 설치해 운영했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81~1982/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165~166쪽, 182쪽).

(4) 주간지 발행

북한은 1950년 8월 13일 서울에서 북한 조선로동당의 당열성자를 대상으로 한 주간지 『당 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를 창간했다.¹⁴⁾ 이 주간지는 창간사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민주건설 투쟁과 당열성자들의 사업을 백방으

13) 조선통신은 1945년 9월 4일 사장 김승식, 편지국장 이종모가 라디오프레스로 시작한 미군정기의 대표적인 통신사였는데 1948년 10월 제1공화국 공보처가 발행허가를 취소해 폐간되었다. 1948년 11월 부사장 김용채가 이름을 고려통신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1949년 10월 다시 한국통신으로 바꾸었다. 전쟁 발발 후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자 이름을 조선통신으로 환원했다(정진석, 2003b, 267~269쪽).

14) 현재 확인되는 것은 8월 27일자 제3호까지이다. 그 후에도 순조롭게 간행되었다면 5~6호 정도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 방조"하기 위해 창간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조선인민의 당면한 력사적 과업인 남조선 전역의 완전 해방과 조국통일 독립의 급속한 완성을 위하여 전체 애국적 인민들과 같이 용감하게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반부에 있어서의 제반 민주건설사업의 성과적 수행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고무 추동할 것이다."고 편집방향을 제시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91, 470쪽). 이런 편집방향은 뒤에서 살펴보는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창간목표와 동일한 것이었다.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잡지 편집경향은 2호와 3호도 비슷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91, 460~603쪽).¹⁵⁾ 이 주간지 역시 신문과 유사하게 북한정부의 이데올로기와 남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소개 및 발전하는 북한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 열성자들에게 주는 주간보』 제1호 내용

조선로동당 강령규약

창간호를 내면서

북반부 민주건설경험 인민위원회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사업하는가

북반부 토지개혁사업에 있어서의 몇 가지 경험

남반부 민주건설경험 서울시 립시인민위원회는 공화국수도의 행정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인민들은 인민위원회를 강화키 위해 진정한 애국자를 선출하였다.

농촌위원회는 토지개혁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

원썬들이 파괴한 철도운수시설을 복구하고 전시수송을 보장키 위해 적극 투쟁한다.

당 생활

로동당건설의 조직적 원칙(상)

15) 이 주간지는 『해방일보』 8월 24일 광고로 창간호 내용이 소개되었다.

(5) 출판물 보급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다음날인 6월 29일 서울시 임시인민위원회 명의로 일체출판물과 오락시설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하고 통신, 신문, 잡지, 단행본 발행과 출판자재의 양도, 매도 등 처분에 대해 서울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했다. 영화관 등 오락시설의 공연이나 개관 및 관련 시설의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조선인민보』, 1950년 7월 3일 2면 참조).

그런 한편 체신성 서울출판물보급사업소에서 7월 22일부터 평양과 소련에서 간행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서적을 서울시 각처에서 판매했다(『조선인민보』, 1950. 7. 20, 22, 8. 27; 『해방일보』, 1950. 7. 21, 22, 광고). 북한신문의 경우 『민주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로동신문』(로동당 기관지), 『조선인민보』, 『해방일보』 등과 『로동자신문』(조선직업총동맹 기관지), 『민주청년』(조선민주청년동맹 기관지), 『농민신문』(조선농민동맹 기관지) 등의 단체기관지들을 취급했다. 잡지 역시 『인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태풍』(태풍사), 『민주녀성』(민주녀성동맹 기관지), 『내각공보』(내각체신청 기관지), 『민족보위』(조국보위후원회 기관지), 『근로자』(로동신문사), 『문학예술』(문예총 기관지) 등 북한정부와 각 단체 기관 잡지가 대부분이었다. 외국 출판물은 『빼오넬뿌라우다』, 『볼셰위끼』, 『공고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로동녀성』, 『쏘베트동맹』, 『청년기술자』 등 전부 소련에서 발행한 신문과 잡지였는데, 그 성격은 북한에서 발행한 잡지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기간행물들은 정기 구독하거나 서울시내 구역분소에 수시 구입이 가능하게 운영되었다.

단행본으로는 『레닌전집』, 『스탈린전집』 등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판매했는데(『해방일보』, 1950. 7. 21). 1950년 7월 말부터는 국영남산서점에서 모스크바외국어출판부에서 간행한 영문 서적 『레닌제국주의론』(1950년판), 『국가와 혁명』(1949년판), 『레닌 일보전진이보퇴각』(1950년판), 『전령맹공산당(볼셰위크)역사』(1950년판) 등도 판매되었다(『조선인민보』, 1950. 7. 31).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신문, 잡지, 서적 모두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만 취급한 것이다. 뒤의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 분석에서

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소련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북한의 절대적인 찬양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이 기간 중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대상이 아니었다. 8월 25일부터는 남대문시립도서관, 종로도서관에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과 북한의 각 분야 발전상을 소개한 도서를 비치하여 무료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해방일보』, 1950. 8. 28).

(6) 영화 상영

영화는 1950년 7월 7일부터 북한과 소련에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여 서울 주민들에게 공산주의와 북한 발전상을 소개하고, 교육시키는 데 적극 활용되었다(『조선인민보』, 1950. 7. 8.). 서울의 시공관과 수도극장, 국도극장 등 주요 극장에서 상영되었는데, 이 기간에 상영된 영화는 북한의 조선국립영화촬영소가 제작한 「민족의 축전」, 「세계민청대회상」, 「내고향」, 「용광로」, 「남북연석회의」 등이 있었다. 소련영화는 「엘바강의 상봉」, 「석화」, 「백림(伯林) 함락」, 「구역당비서」, 「애국자」, 「시베리아 대지의 곡」, 「스탈린그라드의 격전」 등이 상영되었다. 영화제목에서 짐작되듯이 대부분의 영화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계몽영화로 생각된다. 전쟁 중이었는데도 이와 같이 영화 상영을 계속했다는 것은 전쟁 전에 이미 미디어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며, 서울 점령 이후 신속하게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선동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3. 한국전쟁 기간 『조선인민보』·『해방일보』 발행 상황과 편집경향

1) 발행 상황과 주요 참여인물

(1) 발행 상황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는 원래 해방이후 발행된 진보좌익계열 신문의

제호였다(정진석, 2000; 김민환, 2002).¹⁶⁾ 그런데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인 1950년 7월 2일 두 신문을 새로 발간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인민보』는 미군점령기 시절의 신문제호를 다시 사용했으나 지령을 이어받는 형식이 아니라 창간사가 정식으로 게재되고, 7월 2일자 신문의 지령을 제1호로 하여 창간한 북한 정부의 기관지였다(『조선인민보』, 1950. 7. 20 2면 광고 참조). 이 신문은 창간사설에서 “조국의 통일독립 완성과 그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우리 인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민정부 기관의 모든 정책과 노선을 올바르게 인민에게 인식 침투시키며 인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시킴으로써 각급 인민위원회의 정당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창간목표를 제시했다. 이처럼 『조선인민보』는 북한정부가 전쟁수행과 남한점령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창간한 것이었다.

『조선인민보』는 일주일 내내 휴간하는 날이 없이 발행되었고, 타블로이드 배판의 2면 신문이었다. 현재 타블로이드 크기로 축소 영인되어 남아 있는 지면은 1950년의 경우 9월 21일 82호가 마지막 호이다. 그 후 몇 호가 더 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51년도의 복간은 『해방일보』보다 늦은 2월로 추정되는데, 3월 15일 서울이 다시 유엔군과 한국군에 의해 탈환되었으므로 복간된 지 얼마 발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것이다. 『조선인민보』는 창간호에서 4호까지 제호를 한글로 표기했다가 1950년 7월 6일 제5호부터 한자로 표기했다. 본문은 국한문혼용체로 한자 사용이 적지 않았다. 한자해독이 가능

16) 『조선인민보』는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8일 서울에서 처음 출현한 신문이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에 있던 진보좌익계열의 사원들이 주도해서 창간되었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진보좌익적 입장을 대변했다. 편집내용이 세련되고 기사내용이 충실해서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해방공간의 대표적 신문이었다. 1946년 9월 6일 미군정당국이 미군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대일보』와 『중앙신문』과 함께 발행정지 처분을 내려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복간되지 못했다. 『해방일보』는 1945년 9월 19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창간되어 박헌영 일파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 신문이었다. 1946년 5월 18일 이 신문을 인쇄한 조선정판사가 조선공산당의 당 활동자금 조달을 위해 위조지폐를 인쇄했다는 혐의로 발행정지 처분을 받아 폐간되었다.

한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한 것이다. 1951년에 발행한 것으로 유일하게 보존된 90호의 경우 제호형태는 그대로였고, 제목은 한자를 많이 사용했으나, 본문은 한글전용에 숫자만 한자를 썼다. 월정 구독료가 600원, 1부 가격은 20원이었다(『조선인민보』, 1950. 7. 7, 7. 18).

『해방일보』도 1950년 7월 2일 『조선인민보』와 같은 날에 창간되었고, 역시 휴간하는 날이 없이 발행되었다. 발행처가 해방일보사로 되어 있는데, 북한조선로동당의 기관지였다. 『해방일보』는 7월 3일자 제2호에 게재한 창간사설에서 “조선인민의 당면한 력사적 과업인 남조선전역의 완전해방의 조국의 통일 민주독립을 쟁취하는 정의의 투쟁”과 남반부에 북반부와 같은 “모든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조국의 민주독립을 튼튼히 보장하고…… 일체 인민의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해방일보』는 전쟁과 점령정책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차원에서 창간한 것이었는데, 같은 목적을 위해 북한정부 기관지로 창간된 『조선인민보』보다 조금 더 투쟁적인 성격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해방일보』의 신문사 조직은 총책임자 밑에 편집국과 업무국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해방일보』, 8. 8.). 창간직후 종업원 수가 166명이었던 것을 보면(국사편찬위원회, 1990, 477쪽), 전쟁 발발 전에 이미 신문창간을 준비해서 서울을 점령한 직후부터 신문발행에 착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신문은 숫자만 한자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한글을 사용해 『조선인민보』와 달리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었다. 1950년도에 경우 9월23일자 84호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그 후 5호가 더 발행되었던 것 같다. 서울이 유엔군과 한국군에 의해 다시 탈환되는 날까지 신문을 발행한 것이다. 1951년에는 1월 22일 제90호로 복간되어 불규칙하게 발행하다가 2월 15일 95호부터 매일 발행했으나 3월 6일 제114호를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¹⁷⁾ 『해방일

17) 1950년도 신문은 9월 23일자 제84호까지 영인되어 있는데, 90호의 사설내용으로 보아 1950년도에 5호가 더 발행되었던 것 같다. 1951년도에 발행한 것으로는 1월 22일 월요일 제90호에서 1951년 3월 6일자 114호까지 25호 발행된 것 가운데 20호가 영인되었다.

보』도 구독요금이 1개월 6백 원, 1부 20원이었다(『해방일보』, 7. 7.).

두 신문 모두 조각으로 발행했는데, 신문의 보급은 체신성 서울출판물보급 사업소에서 취급했다(『해방일보』, 1950. 8. 1. 사고). 직접 거리에서 판매하여 거리에서는 그날 신문을 그날 사볼 수 있었으나, 정기구독의 경우는 며칠에 한 번씩 묶어서 배달하는 방식이어서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쟁 전의 신문의 보급소나 판매소는 중간 착취기관이라 하여 없애고 인민위원회를 통해 반으로 신문을 배달했다는 것이다(김성철, 1993, 186쪽). 이에 따라 집에서 신문을 통해 세상일을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1주일 혹은 열흘 후였다. 한편 두 신문은 각 동과 직장에 설치한 문화선전실에서 주민과 직장문화사업의 독보회 자료로 활용하거나(국사편찬위원회, 1990, 347쪽), 각종 동원행사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국사편찬위원회, 1990, 513쪽), 학생들의 교양강좌 교재(김성철, 1993, 90쪽) 등으로 사용해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2) 발행에 참여한 주요 인물

『조선인민보』는 이상호¹⁸⁾를 대표로 전평(全評)산하 출판노동자를 동원하여 신문을 발행했다고 한다(정진석, 2003a, 11쪽). 그 외의 인물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문지면에서 특파원으로 파견된 사람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선이나 각 지방에 취재차 파견된 특파원으로 김문규, 김영룡, 석관영, 엄재풍, 정용직, 윤내길, 최준철, 김종윤, 립병하, 고흥상,¹⁹⁾ 립병칠, 리영준, 김일순,²⁰⁾ 인주현 등이 있었다.²¹⁾ 이태준, 김기택, 윤문철, 전동해, 심동완, 김승구 등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칼럼을 기고했다. 또한 종군작가 박팔양과 르포루타쥬

18) 일제시기 『조선일보』가 폐간될 당시 편집부국장이었고, 해방이후 『중앙신문』 편집국장, 『노력인민』 편집인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인물.

19) 『독립신문』(1945. 10월~1949. 4)의 사회부장을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정진석, 1995, 361쪽).

20) 미군정기에 창간된 『경향신문』(1946.10~현재)에서 활동한 여기자로 추정된다(정진석, 1995, 307쪽).

21) 이외에 평양의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로동신문』 특파원이 남한의 주요 전선에 파견되어 전한 기사들도 가끔 게재되었다.

기고자 남궁만의 글이 있었고, 이용악의 시가 게재된 경우도 있었다.

『해방일보』는 북한에서 온 이원조²²⁾가 편집국장이었다(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7쪽),²³⁾ 장하일이 책임주필(사장), 남한출신 프로문학작가인 이영근이 취재부장이었다고 한다(조덕송, 1993, 227쪽). 전선과 지방취재로 파견된 특파원으로 김달수, 리연호, 박영호, 조덕송,²⁴⁾ 고석, 립특파원, 김희갑, 김현제,²⁵⁾ 장호, 송진근, 김진, 리룡진, 윤일모 등이 있었다. 이외에 문학동맹 문학서클 지도원 황하일이 르포기사와 시를 발표하고, 종군기자 박용걸의 르포기사, 립화와 박팔양의 시, 김남천의 종군수첩 등이 게재되었다. 『해방일보』는 『조선인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명 칼럼이 많이 게재되었다. 1950년 7월 21일 리태준의 “해방 서울에서”를 비롯해 특히 8월 이후 37명이 칼럼을 기고했고, 어떤 사람은 2회~5회 기고한 사례도 있었다.²⁶⁾ 주제는 정치, 경제, 국제문제, 토지개혁, 인민위원회 선거와 활동 등 매우 다양했다. 그런데 본사특파원으로 표기된 김희갑이 칼럼을 집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편집국 소속 기자나 논설위원 가운데 칼럼을 집필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22) 이원조는 이육사의 동생으로 일제시기 『조선일보』 학예부기자였고, 해방이후 『해방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내다 월북했던 인물로 후에 숙청되었다고 한다.

23) 중앙일보 편 (1983). 『민족의 증언 2』 122쪽에는 오기영이 이끄는 7, 8명의 기간요원이 서울에 와서 『인민보』와 『해방일보』를 발행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24) 조덕송은 1947년 조선통신사 기자로 언론활동을 시작했다. 1950년 5월 국도신문사에 있을 때 빨갱이로 몰려 구속되었다가 6.25때 풀려나 『해방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전쟁 후 1960~1989년에 조선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논설주간, 통한문제연구소장 등을 지냈다(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189~193쪽).

25) 김현제(1918~1963)는 『국제신문』과 『국제신문』의 후신인 『국도신문』의 사회부장을 하다 『해방일보』에 동원됐는데, 9·28 서울 수복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 동양통신, 『연합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조덕송, 1993).

26) 칼럼 기고자로는 최정일, 김일남, 박민, 송진근, 전선훈, 조일국, 최진규, 김만택, 김자룡, 권옥영, 오룡구, 남철, 유순우, 김영제, 최지명, 립대실, 한운남, 한철, 백일봉, 최지혁, 송종환, 박경수, 김말식, 박태전, 김일우, 박유종, 김영춘, 홍두원, 고병안, 리성민, 박룡국, 홍기욱, 김기수, 김창렬, 김현, 김현웅, 김희갑 등의 이름이 보인다

또한 두 신문에 모두 기고한 인물들도 있었고, 서울에서 피난가지 못한 언론인 가운데 두 신문 제작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다(정만교, 1968, 213쪽; 중앙일보사 편, 1983, 122쪽). 『조선인민보』의 고흥상, 『해방일보』의 조덕송과 김현제 등이 그런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두 신문 모두 북한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지역인 남한 주민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발행한 신문이므로 참여인물에 따라 신문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2) 편집양상

두 신문의 편집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매일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성격의 기사가 반복되었다. 1면의 경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과 인민군총사령부의 보도 내용이 기본적으로 실리고, 드물게 김일성의 명령이나 방송연설이 게재되었다. 비중이 큰 행사나 시행사항 등도 1면에 실리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을 경유한 타스통신의 외신이 보도되었고, 사설이 게재되었다. 사설은 김일성의 방송연설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는 게재되지 않았다. 2면은 인민군의 전과, 서울과 경기, 충청, 강원, 호남 등 인민군이 장악한 지역에서의 인민위원회 설치, 토지개혁사업 등의 사업추진 소식, 군중대회, 쫓기대회 등 주민동원 행사, 인민군과 주민위안공연 안내 기사가 실렸다. 드물게 시, 칼럼, 종군기, 시사만화 등이 게재되었고, 납북된 주요인사와 미군포로 등을 동원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방하는 방송내용이 실렸다. 1, 2면 모두 사진이 자주 게재되었다. 두 신문의 일반적인 지면배치 경향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내각 결정사항, 김일성의 명령과 방송연설, 인민군최고사령부의 보도 등은 두 신문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받아 게재했다. 북한소식은 조선중앙통신으로부터 받았고, 남한소식은 조선중앙통신 송신기사, 조선중앙통신 특파원의 전투지역 종군기사, 『조선인민보』와 『해방일

27) 같은 맥락에서 립특파원으로 표기된 사람이 칼럼 기고자 립대실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조선인민보』·『해방일보』의 지면배치 경향

1면	구호, 최고인민위원회 정령, 김일성명령과 방송연설 인민군총사령부의 보도, 외신 큰 행사소식, 사설 등
2면	구호, 인민군의 전과 남한 점령지역 인민위원회 구성과 토지개혁 실시 관련 각종 군중집회, 쉼기대회 등 행사안내와 주민반응 위안공연 등 문화소식, 칼럼, 중군기, 시 자수인사와 포로의 회유방송 내용 시사만화, 광고 등

보』가 파견한 특파원의 중군기사와 점령지역 취재기사들로 구성되었다.

편집에서 단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큰 글자로 “동포들이여! 형제자매들이여! 조국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 승리를 위하여 총궐기하라! 모든 것을 전선에 바치라!”(『조선인민보』, 8. 15)와 같은 구호나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미국 무력간섭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역도들을 하루속히 우리조국 강토로부터 마지막 놈까지 격멸소탕구축하기 위하여 앞으로!”(『해방일보』, 9. 12; 『조선인민보』, 9. 17)와 같은 김일성의 연설내용을 신문 윗면에 가로로 또는 지면의 중간이나 오른쪽에 세로로 자주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단수는 9단에서 17단까지 불규칙하게 구분되어 지면편집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가끔 시사만화가 실렸는데 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곤경에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광고는 거의 게재되지 않았으나. 광고리는 이름으로 2면 마지막 단에 정부의 출판물 판매 안내광고가 드물게 게재되었고, “인민군원호 종합예술대공연” 안내광고는 작은 크기지만 도안을 사용한 유일한 광고였다(『조선인민보』, 1950. 7. 28). 1951년도의 경우 1950년도에 비해 전쟁관련 기사가 대부분이고, 논조에서도 1950년도 보다 더욱 극렬한 경향을 보였다.

이 두 신문에 대해 북한 언론학자는 조국해방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확립된 전시 신문보도 체제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정당한 혁명적인 조치”였으며, “미제 무력침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 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 속에 전투적 기능을 더욱 높여 당과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리용필, 1985/1993, 259쪽)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은 이 두 신문이 “공산주의 선전과 틀에 짜 넣은 것 같은 승전의 과장기사만 되풀이 보도해” “시민들은 무가지로 뿌려주는 신문지를 휴지로 대용하는 덕을 보았을 뿐”이었다고 한다(정만교, 1968, 213쪽). “언제나 천편일률 맨 날 판에 박은 듯한” 내용으로(박찬웅, 1990, 28쪽) “외부세계의 움직임에는 일체 눈을 가리우고 공산당 선전의 일방적인 보도만”을 한 것이다(최준, 1971, 391쪽). 이렇게 철저한 언론통제를 받는 정부와 당의 기관지여서 독자들은 두 신문을 “관보를 겸한 정부의 선전빠라”라고 인식했고, 귀한 종이 없애면서 간상(奸商)과 정상배가 협잡할 무대를 제공하는 것 같던 대한민국시절 난립했던 신문들을 되레 그리워할 정도였다(김성칠, 1993, 185쪽). 『해방일보』에 동원돼 기자로 활동한 조덕송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써야 하는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조덕송, 1993). 그럼에도 전황에 대해 인민군 발표와 돌아가는 소문 이외에는 알 길이 없어 여전히 아침이면 이 신문들을 사서 보았던 것도 사실이었다(박찬웅, 1990).

4. 『조선인민보』·『해방일보』 사설 논조의 특성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서 전개한 북한의 언론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사설 분석을 통해 북한정부가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출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영인되어 있는 두 신문에서 사설은 『조선인민보』가 65건, 『해방일보』가 84건으로 모두 149건이 게재되었다. 두 신문에서 다룬 사설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관련해 내각수상으로서의 김일성의 방송연설과 인민군총사령관으로서의 명령 내용을 기본으로 그것을 찬양하고

<표 3> 『조선인민보』·『해방일보』 사설의 주제별 논조 (%)

주제	긍정	중립	부정	전체(%)
남한주민독려·동원	27	7	2	36(24.2)
미국 침략·이승만 비판	0	0	24	24(16.1)
소련·스탈린·공산권 찬양	23	0	0	23(15.4)
인민군지원·의용군 독려	18	1	0	19(12.7)
김일성·북한발전 찬양	14	0	0	14(9.4)
남한 새 제도·법 실시	12	0	0	12(8.1)
인민위원회 관련	9	1	0	10(6.7)
조선인민의 성명서 관련	6	0	0	6(4.0)
기타	3	2	0	5(3.4)
전체	112(75.2)	11(7.4)	26(17.4)	149 (100%)

보충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받들도록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슈람(Schramm)이 설명했듯이 공산주의사회의 신문편집자에게 “뉴스란 사회과정의 해석”을 의미한다(Siebert, Peterson & Schramm, et. al., 1956/1991, 183쪽).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서울에서 발행한 두 신문은 김일성의 주장과 명령을 지지하고, 해석하고, 교육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전쟁 현실을 김일성의 시각에서 구성하고 해석한 것이다. 사설은 해석기능을 담당한 대표적인 기사였다.

두 신문 사설의 주제는 <표 3>과 같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독자인 남한 주민을 전쟁에 협조하게 하고, 북한이 추진하는 새 제도 실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동원하는 내용이 36건으로 가장 비중이 커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침략과 이승만을 비판하는 내용이 16.1%(24건), 소련과 스탈린(Stalin)을 찬양하는 내용이 15.4%(23건) 순이었다. 북한이 점령한 남한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며, 새로운 세금제도 실시 등 북한이 남한에 도입하려는 각종 제도와 법령, 선거 등과 관련한 내용에 관한 주제를 합하면 14.8%였다. 전투에 참여한 인민군을

찬양하고, 인민군 지원과 의용군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는 주제도 꾸준히 게재되어 각각 12.7%, 9.4%를 차지했다. 이처럼 두 신문 사설의 주제는 전쟁을 지원하고 남한주민을 동원하려는 발행목표에 충실한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주제에 대한 보도태도 즉 논조를 함께 살펴보면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 스탈린, 김일성에 대해서는 가장 호의적이며 긍정의 논조였고 전쟁 상대자인 미국과 이승만에 대한 보도태도는 적대적인 부정이었다. 다른 주제들의 경우도 중립적인 논조는 매우 드물었다. 두 신문 모두 대체로 절대적인 긍정과 부정의 극단적인 논조를 보였다. 전시체제 신문 논조의 전형을 나타낸 것이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존경과 충성, 찬양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일성의 말은 “그 편언척구(片言隻句)라도 금과옥조처럼 우러러 받들”었고(김성철, 1993, 173쪽), 그 다음 날부터 각계각층이 이에 화답하고 칭송하는 내용을 계속 싣고, 농부가 부지런히 김 내는 것도, 기차가 기운차게 달리는 것도 모두 김일성장군의 연설을 우러러 받들고 감격한 결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어”라는 표현이 거의 언제나 사용하는 수식어가 되어 김일성을 우상화해 갔다. 이것은 네론(Nerone) 등이 설명한 개인숭배(cult of personality) 개념이 적절하게 적용된다(Nerone ed., 1995/1998, 162쪽).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김일성을 찬양하기 위해 왜곡, 해석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논의되기보다는 김일성의 개인적인 지도력과 통치 권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된 것이다.

소련과 스탈린에 대해서도 “위대한 쏘련” “스탈린 대원수는 조선 민족의 해방의 구성이시며 가장 친근한 벗”과 같은 최상의 찬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했다. 스탈린의 동의와 지원으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으로서는(박명림, 1996 I; Torkunov, 2000/2003; 정병준, 2006)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과 이승만이 전쟁을 도발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비판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주구 이승만괴뢰도당으로 하여금 우리 조국에 내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놈들 자신이 직접 무력간섭에 참가”했다는 논리 아래 『조선인민

<표 4> 『조선인민보』·『해방일보』 사설의 주제별 논의구성 방식 (%)

주제	주제기술	주제기술 +해설	주제기술 +선전· 선동	기술+해설 +선전·선동	기술+증 오·적개 심고취	전체(%)
남한주민독려·동원	0	2	27	6	1	36(24.2)
미국 침략·이승만 비판	0	0	0	0	24	24(16.1)
소련·스탈린·공산 권 찬양	1	9	6	7	0	23(15.4)
인민군지원·의용군 독려	0	0	11	8	0	19(12.7)
김일성·북한발전 찬양	0	2	11	2	0	14(9.4)
남한 새 제도·법 실시	0	1	6	5	0	12(8.1)
인민위원회관련	0	2	3	5	0	10(6.7)
조선인민의성명서 관련	0	2	3	1	0	6(4.0)
기타	2	0	3	0	0	5(3.4)
전체	3(2.0)	18(12.1)	70(47.0)	33(22.1)	25(16.8)	149(100%)

보』, 1950. 7. 8.; 『해방일보』, 1951. 9. 4. 등), 극렬한 증오와 적개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해서 증상(name calling)한 것이다.

각 사설이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 주제별로 살펴본 것이 다음 <표 4>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신문 사설의 69.1%(103건)가 선전·선동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설의 주제를 기술하고 해설하는 보편적인 형태의 사설은 18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미국과 이승만에 관한 사설의 구성방식은 전적으로 주제 기술 및 증오와 적개심 고취였는데 이 역시 선전·선동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두 신문 사설의 논의구성방식은 85.9%(128건)가 선전·선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전쟁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며, 남한에 실시하는 북한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동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 예를 들면,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승리의 고무자이시며 조직자이신 김일성 장군의 가르치시는 길로 승리를 위하여 총진군하자! 모두다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해방일보』, 1950. 8. 18) “그리하여 원수들을 우리 강토에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격멸구축할 때까지 모든 힘을 전선에 바치며 인민군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더욱 활발히 더욱 대규모적으로 전개하자!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더욱 앞으로 나가자!”(『조선인민보』, 1950. 9. 10) 이와 같이 사설의 논의 구성방식에서도 전쟁 중에 발행한 두 신문의 역할이 주제에 대한 선전과 선동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 <표 5>는 두 신문이 사설의 제목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본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선전·선동형의 제목이 78건으로 5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주관적 느낌 또는 주장이 61건으로 40.9%를 차지했다. 사실의 객관적 서술 형식의 사설제목은 매우 적었다. 두 신문의 선동적 성격이 사설제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설제목이 문장형태였는데, 문장의 길이가 긴 제목도 적지 않았다. 『조선인민보』의 경우 주관적인 느낌과 주장을 하는 형태의 사설 제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 비해 『해방일보』는 선전·선동방식의 제목이 더 많았다. 하지만 1951년도 발행한 신문이 『조선인민보』가 한 호만 남아 있는 데 비해, 『해방일보』는 20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중공군의 도움으로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점령했지만 1950년도에 비해 불안정한 상황이어

<표 5> 『조선인민보』·『해방일보』 사설 제목 표현방식 (%)

	사실의 객관적서술	주관적 느낌과 주장	선전·선동	전체(%)
조선인민보	6	33	26	65
해방일보	4	28	52	84
전체	10(6.7)	61(40.9)	78(52.3)	149(100%)

서 전체적인 신문 편집이 영성한 편이었고, 모든 기사에서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 많았다. 1951년도의 『조선인민보』가 더 남아 있었다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설 제목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느낌과 주장 형식의 사설 제목 사례

- 세계평화와 안전의 성새(城塞)인 위대한 쏘련과의 형제적 친선은 조선인민의 역사적 해방투쟁에 있어 승리의 담보이다(『조선인민보』, 1950. 7. 20.)
- 공화국 남반부 지역에 로동법령 실시를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해방일보』, 1950. 8. 22.)

2. 선전·선동 형식의 사설제목 사례

- 김일성장군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미제 격멸전에 더욱더 용감하라!(『조선인민보』, 1950. 7. 11.)
- 미국강도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조선인민은 열배 백배로 보복하자!(『해방일보』, 1950. 9. 23)

5.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전쟁(6·25전쟁) 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시행한 언론정책과 그에 따른 주요 언론활동을 살펴보았다. 또한 언론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두 신문의 발행 양상을 살펴보고 사설분석을 통해 두 신문의 기본적인 인식과 논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시행한 언론활동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1950년 6월 28일 그날부터 이른바 방송 일군들에 의해 서울중앙방송을 장악하여 방송하기 시작했고, 서울 점령 5일째인 7월 2일 출판보도일군들이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를 창간했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지 10일째 되는 날부터 서울의 극장에서 북한과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 이어 북한과 소련의 주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정기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북한과 소련의 출판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급, 판매했고, 주간지도 새로 창간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전쟁이 정치, 군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선전, 선동을 위한 매체활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된 전쟁이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매체가 출현했으나 그 목표는 모두 같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전쟁수행을 지원하고, 점령한 남한지역에 북한식 제도와 법을 도입하여 공산주의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김일성의 계획에 충실하게 복무하려는 것이 모든 매체의 한결같은 목표였다. 모든 매체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로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에 대한 집단적 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클라우제비츠(Clauswitz, 1949/1998, 13~14쪽)가 주장한 유명한 명제 “전쟁은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행하는 정치”이며, “전쟁은 권력의 또 다른 행사이고 정책의 실천”(김동춘, 2006, 99쪽)이라고 할 때, 한국전쟁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전개한 언론활동은 북한의 내각수상이며 인민군총사령관인 김일성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와 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선전하고, 교육하는 수단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두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사설 논조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는 키인(Keane)의 설명이 유용하다. 키인은 민주주의체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체제의 두드러진 속성은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Keane, 1991/1995, 128~131쪽). 두 신문은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의도에 따라 인민군과 점령지 남한 주민의 사기를 독려하고, 선동하기 위해 “솔직한 거짓말과 계산된 비밀”

을 조국해방 전쟁수행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전쟁 중에 번성하는 군사기밀 역시 거짓말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의 방송연설, 인민위원회에서의 정치진술 및 인민군총사령관으로서의 명령을 받들어 두 신문은 “일상화된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寫實)주의”에 입각하여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노선에 따라 있었던 사실을 ‘있어야 할 사실’로 고양하여 형상화”(조덕송, 1993, 227쪽)한 것이었다. 조덕송이 지적했듯이 거짓말을 쓰는 것이 혁명노선에 충실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사였던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두 신문은 사설에서 한국전쟁이 자신들의 남한 침략으로 시작된 사실은 은폐하고,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공격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인민군 전투의 승리, 폭격과 점령 등 잘된 것은 말하지만, 실패, 패전 등 잘못된 것은 한 번도 밝히지 않으면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두 신문 사설의 은폐와 과장의 거짓말은 박명림이 “비현실적 낙관주의”(박명림, 2002, 239쪽)로 평가한 북한정권의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외신 역시 소련의 타스통신을 통해 전달받아, 북한 내각 직속의 조선중앙통신사의 “공인된 해석 창구”를 통해 해석된 내용을 다른 신문과 방송에 전해져 보도되었다. 민주사회 언론의 성격을 설명한 키인의 논의는 더 강력한 양상을 보이며 북한의 점령지 신문 『조선인민보』와 『해방일보』의 논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신문은 김일성과 북한정부의 발전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무, 찬양하고, 침략자로 규정한 미제국주의와 그 괴뢰도당으로 부른 이승만에 대해서는 항상 증오와 적개심을 고취하며 전쟁을 독려했다. 민주사회의 정부발표가 고상한 거짓말(noble lies)이라면 전쟁기간 두 신문의 사설은 선동적인 거짓말(agitative lies)을 일상화한 셈이었다. 어떤 체제에서든 미디어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경제적·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Altschull, 1995). 한국전쟁 당시 두 신문은 북한정부와 조선노동당 기관지라는 권력의 대행자(agents of power)로 기능하여 선동적 거짓말을 과장해서

보도한 수단적 존재였다. 그런 방식으로 당시 남한의 독자들을 사상적으로 동원하고, 그들의 시각과 행위를 주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두 신문을 비롯해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남한에서 운영한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공식역사(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81~1982/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180~181쪽)나 리용필이 평가하듯 김일성이 전쟁기간 자신들에게 부여한 역할에는 충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용자인 남한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 공산주의 열성분자들에게는 호응과 지지를 받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언론매체의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진실성이 결여된 끊임없는 선전과 선동, 이데올로기적 교화에 시달리면서 피곤해하고(전상인, 2002), 부패하고 무능할정정 이승만정부의 남한체제를 그리워했다.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오늘날과 같이 불타오른 건 없을 겁니다.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보고 모두들 대한민국을 빠져리게 그리워하거든요”(김성철, 1993, 176쪽) 이렇게 볼 때 한국전쟁 개시이후 북한이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 언론활동은 그들이 목표로 한 남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1990). 『북한관계사료집 X(1946~1950)』.

_____ (1991). 『북한관계사료집 VII (1946~1951)』.

_____ (1996). 『북한관계사료집 XXIII(1950)』.

김동춘 (2006). 『전쟁과 사회』. 개정판. 돌베개.

김민환 (2002). 『한국언론사』. 개정판. 나남출판.

김성철 (1993). 『역사 앞에서: 한 사학자의 6·25일기』. 창작과비평사.

김영주 (1991). 북한 언론의 성격과 그 체계. 김영주·이범수 (편), 『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원전을 통해 본 그 이론, 역사, 매체, 정책, 사상』 (15~37쪽). 서울: 나남.

- _____. (1998). 『현대 북한 언론 연구 : 내재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출판부.
- 김영주·이범수 (1991). 『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 원전을 통해 본 그 이론, 역사, 매체, 정책, 사상』. 서울: 나남.
- 김영희 (2007). 6·25전쟁기간 뼈라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을한 (1957). 집집마다 『라디오』를. 『방송』 7월호, 64~66.
- 김재준 (1970). 적치하 수도의 수난 백일. 『신동아』 70호, 168~173.
- 리용필 (1985/1993). 『조선신문 100년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나남출판.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II. 나남출판.
- _____. (2002).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 박태균 (2005). 『한국전쟁』. 책과 함께.
- 박찬웅 (1990). 『6·25일지』. 지식산업사.
- 배경식 (2002).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전시동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49~294.
- 배순재·라두림 (1967).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김영주·이범수 공편 (1991). 39~121.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1981~1982). 『조선전사』, 22~23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김영주·이범수 공편(1991). 123~225.
- 전상인 (2002). 6·25전쟁의 사회사 : 서울시민의 6·25전쟁.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175~221쪽).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정만교 (1968). 정부수립 및 6·25동란. 한국의 언론간행위원회 편. 『한국의 언론』. 문화공 보부, 183~230.
- 정병준 (2006).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서울: 돌베개.
- 정용욱 (2004).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호, 97~133.
- 정진석 (1995). 『인물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 _____. (2000). 해방공간의 좌익언론과 언론인들. 『관훈저널』 겨울호(77호), 263~306.
- _____. (2003a). 남북·피살 언론인들. 대한언론인회 편찬위원회 편.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 : 6·25전쟁 언론수난사』. 대한언론인회, 7~76.
- _____. (2003b). 광복후 6·25 전쟁까지의 언론. 대한언론인회 편찬위원회 편. 『돌아

- 오지 못 한 언론인들 : 6·25전쟁 언론수난사』 (180~288쪽). 대한언론인회, 조덕송 (1993). 김현제. 대한언론인회편. 『한국언론인물사화 8·15후편(상)』 (223~228쪽).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조선일보 사람들-광복 이후 편』.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중앙일보사편 (1983). 『민족의 증언 2』. 서울: 중앙일보사.
- 최 준 (1971).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
-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정치사분과 (1990). 『한국전쟁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1996). 『빨치산자료집 6』 신문편 (1).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 화연구소.
- _____ (1996). 『빨치산자료집 7』 신문편 (2).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 화연구소.
- _____ (2000). 『한국전쟁기 뼈라』.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합동통신 30년 편찬위원회 편 (1975). 『합동통신 30년』. 서울: 합동통신사.
- Altschull, J. Hebert (1995). *Agents of Power : the Media and Public Policy* 2nd ed.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 Clausewitz, Carl von (1949). *Vom Kriege*. 류제승 옮김 (1998). 『전쟁론』. 서울: 책세상.
- Keane, John (1991). *The Media and Democracy*. 주동황·정용준·최영목 공역 (1995).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 Nerone, John C. ed. (1995). *Last Rights : Revisiting Four Theories of the Press*. 차재영 옮김 (1998). 『최후의 권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 Siebert , F. S., T. Peterson & W. Schramm, et. al. (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강대인 옮김 (1991). 『언론의 4 이론』. 서울: 나남.
- Torkunov, A. V. (2000). *The War in Korea*. 구중서 옮김 (2003).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디터.

**Press Activity toward the South
by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Chosuninmin Bo* and the *Haebang Ilbo***

Young-Hee Kim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press policy and the related activities performed by North Korea in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evaluate them.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activit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two representative newspapers published in the South by North Korea at that times — the *Chosuninmin Bo* and the *Haebang Ilbo* — were reviewed and analyzed. North Korea operated broadcasting and started newspapers just after the possession of Seoul, and also performed various positive press activities - such as the distribution of the newspapers and periodicals of North Korea and U.S.S.R., putting the movies on the screen, and founding the weekly, etc. But the target of all the media were the same. It aimed to support Kim Il-Sung's scheme which intended to carry out the war successfully and to make the South under occupation Communism System by introducing the Northern law and system. The two newspapers, as agent of power, made only such a role to agitate and exaggerate the false things with unrealistic optimism. They intended to ideologically mobilize the South people and to affect on their perspectives and acts. However the media including the two newspapers being operated in the South during the war had not got the faith or the good response from the South people as an audience. Most of South Koreans were tired with their endless and one-sided propaganda, agitation and ideological enlightenment. It could therefore be evaluated that the press activities by North Korea in the South during the Korean War resulted with many limitations in ideologically organizing and mobilizing the South Koreans.

Key words: the Korean War, North Korea, South Korea, press activity,
Chosuninmin Bo, *Haebang Ilbo*